# 8 + 5 / 4 - 3 / 4 - 2016. April 4



www.kma.go.kr Vol. 418

특집

제33회 기상기후 사진 공모 '수상작품'

정책 클로즈업

가뭄 극복, 강원지방기상청이 함께 합니다

\_\_\_ 열린마당

아름다운 터키의 하늘을 만나다





# 국민을 향한 즐거운 변화



# 국민 생활 맞춤서비스 정부3.0으로 국민 행복을 키워갑니다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개방하고 (투명한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하여 (유능한 정부) 국민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정부)





# 2016 April **Vol.418**

2016년 4월호(통권 418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60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16년 4월 11일 **발간등록번호** 11-1360000 -000079-06 **발행인** 고윤화 **편집장** 정현숙 **편집기획** 대변인실 최의수 조아라 **디자인/인쇄** 사)한국시각정애인연합회



### 특집 기상기후사진전

'비와 바람 그리고 햇빛'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 02

#### 정책 클로즈업

항공기상정보의 국제표준과 공공정보 개방 · 공유 현황 · 04 가뭄 극복, 강원지방기상청이 함께 합니다 · 06

#### 해외동향

미국, 이베리아 반도를 뒤덮은 사하라 사막 흙먼지 外·08

#### Clean KMA

함께하는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10

#### With KMA

기상청의 톱니바퀴 영향예보 TF팀! ·12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 열린마당

청백리와 소통의 얼이 숨 쉬는 파주 · 14 아름다운 사람과 아름다운 추억을, 아름다운 제주에서 · 16

서른 번째 봄 · 18

위성으로 한반도 주변 해양기상을 한눈에 감시한다! · 20 아름다운 터키의 하늘을 만나다· 22 마무리와 새 출발을 다짐하며 춘천으로! · 24



#### -KMA 날씨 +

**날씨 + 건강** 봄철 나들이길, 충분한 휴식이 중요 · 26 **날씨 + 24절**기 청명(淸明) ·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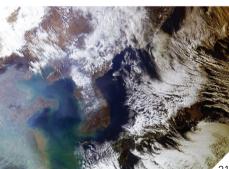


월간기상정보 · 28 포토 브리핑 · 30 독자 마당 · 32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l.or.kr



# '비와 바람 그리고 햇빛'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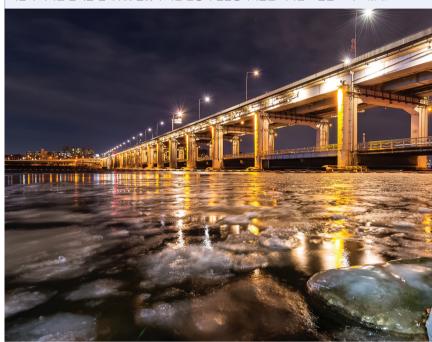
제33회 기상기후 사진 공모 '수상 작품'



기상청은 세계 기상의 날(3,23)을 맞이하여. '비와 바람 그리고 햇빛'이라는 주제로 사진을 공모하였다. 공모 결과 총 1,145점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우수상 2점(기상청장상, 상금 각 100만 원), 장려상 4점 (기상청장상, 상금 각 50만 원), 입선 43점(상금 각 10만 원)을 선정하였다. 올해 입상한 49점은 지난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민청(시민프라자홀)에서 전시되었으며. 4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국회도서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 우수 얼음 둥둥 반포대교 | 이성우, 2016년 1월 23일

체감온도 영하 20도가 넘는 강추위가 계속되자 얼어붙은 한강을 촬영한 사진이다. 이날의 차가운 날씨를 말해주듯 불빛에 비친 한강의 얼음덩어리들은 색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려 **눈보라 치는 거리** | 김영근, 2016년 1월 18일 연일 폭설과 한파가 몰아치던 1월의 어느 날, 강한 바람과 함께 내린 폭설에 옷깃을 부여잡은 시민들이 눈보라를 뚫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생생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다.

장려 황사공습 | 김영오, 2015년 3월 27일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여명에 비친 도심의 모습이 마치 그림 속의 한 장면과 같이 보인다.



마치 SF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대형 보호막을 친 것 같은 형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우수 자연이 만들어낸 지구보호 방어막 | 김재만, 2016년 1월 1일 소백산 하늘에 바람과 구름이 빚어낸 얇게 펴진 구름이 바람결에 날리면서,



장려 **풍력발전소의 노을** 이상운, 2013년 10월 18일 대관령에 있는 풍력발전기들의 모습과 구름으로 뒤덮인 하늘이 저녁노을에 비쳐 이채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장려 타는 목마른 기다림으로 | 김동우, 2015년 10월 2일 우리나라 근대기상관측 이래 가장 혹독한 가뭄으로 일컬어지는 2015년, 이날 내린 비에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영종도의 풍경이다. 물자원의 소중함과 자원 활용을 위한 지혜가 필요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진이다.

# 항공기상정보의 국제표준과 공공정보 개방·공유 현황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25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제 항공교통관리체계 운영 (Global ATM Operation)의 우선 조건으로 디지털 항공정보 제공을 계획하였다. 또한, 회원국의 항공정보관리체계(AIM: 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 하여 제36차 총회(2007.9)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6년까지 기상 분야를 포함한 6개 분야의 항공정보를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하고 있으며, 기상 분야는 항공기상청에서 버전 1.1을 구축('15.12.)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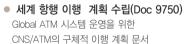
### 항공정보관리체계(AIM) 개념(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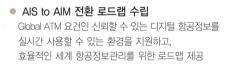
# **전세계 항공정보의 전자적 공유**

#### ▶근거: ICAO부속서 4.15개정 "2016년까지 AIM 체계로 전환"



 Global ATM 개념 도입(Doc 9854) 2025년까지 전 세계적 조화로 통합된 ATM 시스템 구축





# ▶항공정보관리체계 이행 및 활용

ICAO 표준 이행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 1위로 세계 최고 항공안전국의로서 ANNEX 15.4등의 국제 표준이행

출발부터 착륙 단계까지의 항공기 운항 지원



• 최첨단 항공기 탑재 장비 운영지원









▶ANNEX 15 및 4 주요 개정내용



항공정보 품질 기준 항공정보 생산 자동화 디지털 항공정보 처리 지침 (인터넷 제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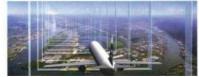
항공정보 배표 표준화 (569-AIR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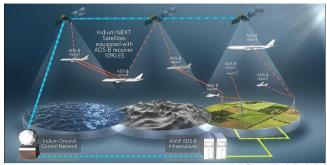
장애물 자료 DB 구축 기준



• 성능기반항행(PBN) 이행에 필요한 항공정보 제공







미래 항공교통의 통신체계



항공기 감시체계 구축에 따른 실시간 항공정보서비스

# 항공기상정보의 국제표준(IWXXM)

항공기상정보는 세계기상기구(WMO)가 국제기상전보식(Manual on Codes International Codes)에 정한 것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항공정보관리체계(AIM) 의 기상 분야 국제표준(WXXM)은 ICAO가 2007년부터 제시한 WXXM 시험모델을 기반으로 항공선도국가인 미국(FAA, NOAA) 과 유럽(EUROCONTROL)에서 XML로 개발 및 테스트한 METAR/ SPECI, TAF, SIGMET(4종)을 ICAO와 WMO가 협의하여 우선 채택 (VER 1.1, '15.3.) 하였다. 또한, 버전 상향을 통하여 국제표준 대상을 늘려가고 있다.

### 국제기구가 정한 항공기상정보 종류

WMO	FM 15-XIV METAR (관측)	FM 16-XIVI SPECI (특별관측)	FM 41-IV CODAR (항공기 고층관측)	FM 42-XI AMDAR (항공기 기상관측)
WMO	FM 50-XIII WINTEM (고층 바람/ 기온)	FM 51-XIV TAF (공항 예보)	FM 53-X ARFOR (공역 예보)	FM 54-X ROFOR (항공로 예보)
ICAO	SIGMET (위험기상정보)	AIRMET (저고도 위험기상정보)	GAMET (저고도 공역 예보)	AIREP (항공기 기상관측)
	WARNING (공항 경보)	Windshear WARNING (윈드시어 경보)	Volcanic Ash Advisory (화산재주의보)	Tropical Cyclones Advisory (열대성저기압주의보)

# 항공기상정보 개방 · 공유

항공기상정보는 ICAO와 WMO의 업무협약('63)을 통해 생산 및 공유를 결정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항공정보의 국제적인 공유체계인 항공고정통신망(AFTN: Aeronautical Fixed Telecommucation Networks)을 이용하여 교환하고 있으며, 세계공역예보시스템 (WAFS: World Area Forecast System)을 이용하여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항공기상정보를 개방하여 민간사업자와 항공정보의 융합으로 항공산업에 다각적인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항공기상청에서는 공공데이터 민간 활성화를 위해 수요가 많은 국내에서 생산된 항공기상정보를 대상으로 Open-API와 파일다운로드 제공('16. 상반기)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AFTN과 WAFS로 수집된 전 세계 항공기상정보를 개방할 계획이다.

# 향후 항공기상정보는?

ICAO는 국제항공항행계획(GANP: Global Air Navigation Plan)실현을 위해 미래 항공시스템 전환 계획(ASBU: Aviation System Block Upgrades)을 수립('13.9.)하고, 체약국에 이행을 권고하여 우리나라는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계획(NARAE: National ATM Reformation And Enhancement)을 수립(국토 교통부, '15.1.)하여 관련 민·관· 학 협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 계획에는 항공정보관리체계(AIM) 구축. 글로벌 항공데이터 종합관리망(SWIM: System Wide Information Management) 개발 및 구축, 항공기 감시체계 강화, 항공기상정보 활용체계(AMET: Advanced Meteorological Information)구축 등의 과제가 있으며, 항공기상청은 AMET과제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AMET과제의 세부 내용으로는 WAFS, 국제 항공로 화산·열대성 저기압 감시, 공항경보, 윈드시어 경보, SIGMET과 기타 기상정보의 관리 및 적시 제공으로 공역 수용량, 공역 이용 탄력성 향상, 효율적 운항에 기여이다. 특히 NARAE의 항공기 감시체계 과제의 완료로 항공기 비행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 · 처리되어 AMDAR의 자료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 궤적기반 운항과 수치모델 활용 증가, 레이더 · 기상위성 등의 원격탐측 검정에 사용되어 기상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항공기상정보는 품질, 무결성 및 정시성 확보로 미래 항공교통에서 항공정보와 융합적으로 사용되어 안전성, 경제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가뭄 극복. 강원지방기상청이 함께 합니다

강원지방기상청

2013년, 강원 영동 지역에 내린 강수량은 1973년 이후 가장 적었고, 2014년에는 영서 지역이 최소량을 기록했다. 2015년에도 마른장마가 이어지면서 강원도 전체 강수량은 평년대비 60~70%에 그쳤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2015년 11월 영동 지역에 평년보다 5배가 많은 400mm. 영서 지역에는 3배 많은 120mm의 비가 내린 것이었다. 하지만, 강원도는 3년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아직도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 가뭄의 종류와 가뭄체감지수

기상학적 가뭄은 일정 기간의 평균적인 강수량보다 적은 강수로 인해 건조한 날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종류의 가뭄에 비해 선행되는 가뭄이다. 농업적 가뭄은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의 부족을 의미하며, 농업가뭄 이후에 수문학적 가뭄이 발생한다. 수문학적 가뭄은 전반적인 수자원 공급의 부족을 의미하며. 특히 댐이나 저수지, 그리고 하천 등의 수량 부족을 말한다. 인간의 물 수요에 따른 공급의 부족이 수문학적 가뭄을 야기하기도 한다. 사회경제적 가뭄은 사회적으로 물의 수요가 공급량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물 부족 현상으로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똑같이 비가 안 온다고 해도 각 분야에서 느끼는 가뭄체감지수는 이렇게 다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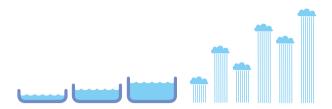
# 가뭄 극복을 위한 대책수립

가뭄은 대형복합재난의 형태로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간의 기밀한 협조체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공통된 가뭄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범부처 차원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대책수립을 위한 통합적 가뭄재해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가뭄관리 체계 구축' 기획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다. 그럼 강원지방기상청은 강원도 가뭄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

# 강원도 가뭄대응 대책 수립 지원

강원지방기상청의 강원도 가뭄 극복을 위한 지원은 가뭄이 극심해지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2012년 7월부터 강원도 내 수문 및 가뭄 관련 기관에 '강원도 강수통계정보 및 저수율 현황'을 FAX. E-mail을 통해 순별마다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부터는 수요자에게 신속학과 편리학을 더한 '강원도 기후서비스 BAND'를 통해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관련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달려갔다. 2015년 10월 '춘천국제물포럼', 2015년 12월 국토부, 강원도, K-water, 수자원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강원지역 가뭄대책 토론회', 2016년 2월 강원도지사 주재로 진행된 '민·관·군 합동 가뭄대책 회의'와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상청이 공동 주최한 '가뭄정보 생산 기술현황 및 다부처 공동 대응 방안 심포지엄' 등을 통해 가뭄 현황과 기상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더불어 심각해지고 있는 가뭄으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과 강원도의 체계적인 물 관리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뭄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대응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

2016년 1월에는 강원도청 산하 연구기관인 강원발전연구원과 함께 '지속되는 가뭄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책' 이라는 주제로 정책메모를 발간하기도 하였으며, 2016년 2월에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통해 봄철 기상전망을 브리핑하면서 가뭄 현황 및 전망도 전달하였다.

강원도는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지난 2월 강원도지사 주재로 열린 '유관기관 합동 가뭄대책 회의'에서 강원지방기상청을 '가뭄대응 유공기관'으로 선정하고 감사패를 통해 도민들의 마음을 전해주었다.

# 가뭄 극복을 위한 강원지방기상청의 노력은 진행형

2015년 7월 기상청의 2차 조직개편으로 기후서비스과가 신설된 이후, 강원지방기상청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고. 가뭄 극복을 위해서도 항상 강원도와 함께 하였다.

가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곳이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이 그러했듯이 가뭄이 극복되는 그 날까지 강원도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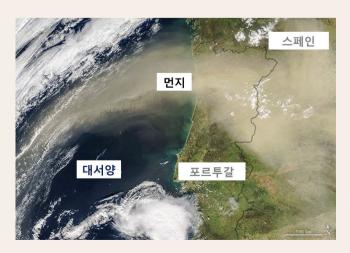


# 미국, 이베리아 반도를 뒤덮은 사하라 사막 흙먼지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Aqua 위성에 탑재된 MODIS 센서를 이용하여 이베리아 반도를 뒤덮은 사하라 사막 흙먼지를 관측하였다. 해당 영상은 2016년 2월 21일 촬영된 것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총천연색(natural—color)으로 합성되어 흙먼지는 황토색, 육지는 초록색, 바다는 청록색, 구름은 밝은 흰색으로 보인다. 'Weather channel' 보고에 의하면, 이 흙먼지는 하층 저기압 시스템에 의하여 사하라 사막에서 흙먼지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기 먼지를 유발시키는 곳으로, 전 지구에서 발생하는 대기 먼지의 70%가 이곳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기온 감소와 가시거리를 저해, 인간 호흡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그러나 사막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네랄 먼지(mineral dust)는 육지와 해상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대기 및 기후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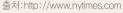
출처:http://earthobservatory.nasa.gov



# 미국, 지카바이려스.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

최근 '뉴욕타임스'는 이번 지카바이러스의 유행이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향후 수십 년 동안 지구온난화는 질병 매개인 모기의 생존 영역과 생애주기 속도를 증가시켜 온대지역에 깊이 침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과 빠른 인구 증가에 따른 최악의 시나리오 결과. 주요 모기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수는 오늘날의 40억 명에서 금세기 말에는 그 두 배에 달하는 80~90억 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 (NCAR)에서 기후와 건강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앤드류 모나한 (Andrew Monaghan) 박사는,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모기를 통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모기 알이 성충이 되는 속도가 빨라져 바이러스도 그만큼 더 빨리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

모기 서식에 최적의 기후인 열대지역 도시들은 불과 몇 년 전인구의 반 이상이 모여들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으나, 건강의료에 대한 투자와 상하수도관 같은 기초 공공보건 시설은 도시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최근 수십 년간 효과적인 모기 통제가어려웠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 2050 기후정책계획 마련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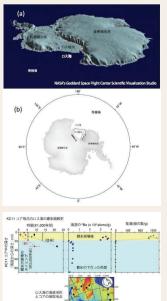
독일 정부는 2050년 국가 온실가스배출 계획으로 80~95% 감소방안을 협의 중이다. 협의 결과에 따라 올해 말 입법 제의신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산업, 지방 행정 및 시민 단체의 참여로 온실가스배출 감소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2050 계획에 따라 400여 개의 잠정적 행정조치가 마련 중이며, 온실가스배출 중단을 위해 에너지, 산업, 교통, 농업 수산, 주택 관련 5개 협의체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2050 계획 추진에 앞서 2050년까지 전력 생산을 위한 화석연료 체제에서 재생 가능한 자원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 고려할 것이다. 갈탄의 전환 시기는 2030년, 모든 석탄자원의 전환은 2040년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다섯 협의체의 논의 결과는 차후 독일생태연구소(Oko-Institut)의 분석을 거쳐 6월에서 8월 사이 독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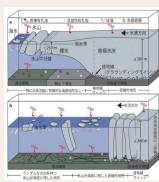
출처:http://www.endseurope.com

# 대기와 바다의 온난화로 인한 남극 빙하의 대규모 붕괴

대기와 바다의 온난화로 인하여 조몬시대 남극 로스빙붕의 대규모 붕괴가 일어났음을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와 동경대학교 대기해양연구소가 공동으로 밝혔다. 이는 홋카이도의 3배 이상 크기의 로스빙붕이 조몬시대에 붕괴된 사실과 붕괴의 원인이 대기와 해양의 온도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다. 로스해의 빙붕과 빙하 융해의 역사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확인된바 없으며, 멀고 험한 조사해역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시료에서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는 플랑크톤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해저에서 시추된 시료를 모두 태운 후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방사성탄소(14C) 연대측정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방사성탄소는 5만 년에서 질소에 의해 붕괴되기 때문에 만약 5만 년 이상 된 탄소가 해저에 쌓이면 실제 연대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번 연구는 새로 개발된 특정 유기화합물추출법과 싱글스테이지 가속기질량분석장비 등을 사용하여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을 이용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다.

출처:http://www.jamstec.go.jp









#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기상청에서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강의를 의뢰받고 강의를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강의에 대하여 행동강령에서는 사전신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횟수 및 시간제한, 초과금액 반환의무 등 새로운 규정들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행동강령 제15조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15조(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신고)

-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 · 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는 미리 전산시스템(e-사람)을 통해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 등을 본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 · 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 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 1에 따 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 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 관의 검토를 거쳐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2.18〉
- ④ 공무원이 기상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참석수당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18>
- ⑤ 공무원이 별표 2에 따른 대가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에게 기 준 초과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8〉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 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8〉





- 신고가 면제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 포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국가: 중앙행정기관, 국립대학교
  -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 소속기관
  - 국가의 소속기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규정에 포함된 소속기관 (예)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 · 사업소 등 (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 공기업, 공사·공단 등에서 요청한 경우는 신고대상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외부강사료 산출 시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인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통상적으로 강의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때는 기관의 예산으로 지급할 것이고, 이때 적용하는 일정한 기 준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기준을 벗어나서 과다한 강의료를 받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이는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 공하는 우회적인 수단으로 외부강의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시한 '직무 관련 외부강의 대가 상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즉, 요청기 관의 지급기준 한도에 맞게 대가를 받았을지라도 공무원의 소속 기관이 적용하는 수령기준 한도를 벗어나서 받을 수 는 없습니다.

기관장이 외부강의를 나갈 경우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기관장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cdot$  회의 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를 제출  $\cdot$  관리하게 하되, 횟 수를 초과한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출강이나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한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스스로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 · 회의 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제11장)"에 따 라 대가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외부강의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사전 결재를 받은 후 출강하여야 합니다.(다만, 겸직허가 를 받은 경우는 예외)

휴직 중 외부강의도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는 외부강의 · 회의에 따른 복무 사항의 선결을 전제로 하므로 외부강의 · 회의에 따른 복 무상 조치(출강 보고 및 허가 · 승인 결재, 근무상황 처리 등)는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외부강의 대가 상한선 기준 관련) 직무 관련 강의 · 강연은 대가 상한선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직무'란 무엇인지요?

해당 공무원 개인의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기관의 사무까지 포함하여 '직무'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행동강령에 열거된 행위유형 외에 신고대상은 무엇이 있는지요?

기고: 대중에 공개되어 원할 경우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매체에 실리는 원고를 작성하는 행위는 면제(「신문 등의 진흥 에 관한 법률, 「방송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매체 외에 실리는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상청의 톱니바퀴

영향예보 TF팀!



# 영향예보 TF팀은 '톱니바퀴'다!

영향예보로의 전환을 위해 여러 분야와 기술,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향예보 TF팀은 일종의 톱니바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영향예보 TF팀은 먼저 기상청 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기상청 안에서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뿐만 아니라, 파편처럼 흩어져있는 보석 같은 기술과 노하우들을 융합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청을 넘어 방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일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향예보는 방재기관의 현장 지식과 노하우가 없이는 완성될 수 없으므로, 기상재해 방재기관과 지자체에 영향정보를 전달하고 또 그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배워올 수 있는 양방향 소통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정보와 국민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상청은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 관점에서 날씨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계산하여 제공해줌으로써,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 편한 기상정보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기상청 안팎을 연결하고, 기상정보와 국민을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영향예보 TF팀은 기상청의 톱니바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영향예보 TF팀에는 다과가 많다!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영향예보 TF팀은 회의를 주최하는 경우가 많은데, 손님을 빈손으로 모실 수는 없으니 늘 다과를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회의 때 남은 과자는 우리 팀의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때로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빠서 과자로 식사를 때워가며 일하기도 합니다.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는 팀 내부회의 땐 떨어져 가는 기력을 채워주는 에너지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갖고 있는 과자의 양과 종류는 다른 부서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소비량만큼은 단연 영향예보 TF 팀이 최고라 자신할 수 있습니다. 과연 청 내에서 우리만큼 과자를 많이 먹는 부서가 또 있을까요?^^;

# 허둥지둥 수습들!

지금의 영향예보 TF팀은 총 9명이지만, 처음 TF가 발족되었을 땐 6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무려 절반인 세 명이 수습 공무원 이었기에, 좌충우돌 작은 업무 하나하나에도 굴곡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3일, TF팀이 처음 주최했던 워크숍에서는 허둥 지둥, 우왕좌왕이었습니다. 워크숍 진행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해 혼란스럽기도 했고. 마이크도 부족해 참석자들은 목소리를 높여 토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세 명의 인력이 추가 되었으며, 수습들은 여전히 경력 많은 베테랑들은 아니지만 젊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영향예보 TF팀을 이끌어가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뚜렷한 목표의식과 자긍심!

TF팀은 그 특성상 탄생부터 뚜렷하고 확고한 목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팀원이 모두 영향예보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향해 짜릿하게 정렬되어 일관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부담감이 아닌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팀이 운영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TF팀장부터 주무관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업무 하나하나가 반영되어 팀 전체의 방향이 결정되니. 업무에 대해 생기는 강한 자긍심은 일종의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상재해로부터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

영향예보 TF팀의 최종적인 목적은 기상재해로부터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며,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대하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영향예보 TF팀은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청백리와 소통의 얼이 숨쉬는 파주

매서운 겨울바람이 지나가고 꽃피는 계절을 맞 이한 파주 문산에는 반구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청백리의 상징인 황희정승 의 사적지가 고즈넉이 있으며, 석양을 뒤로하고 멀리 북녘땅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채 5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 파주지역기상서비 스센터가 있고, 두 곳이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윤건희 수도권기상청



# 청백리의 상징, 황희정승

청백리의 상징이었던 황희 선생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조 선시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임금으로 손꼽히는 세종대왕에게도 황희 같은 인물이 있었기에 찬란한 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황희 정승의 사상과 가치관은 오늘날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 확립에도 필요 한 덕목인데, 그의 소통을 통한 갈등 해결노력을 소개해 본다.

첫째. 그는 남의 이야기도 들어주는 '소통과 배려'를 품고 태어난 인물 이었다. 이런 황희의 강점을 간파한 세종은 조정 중대사에 갈등이 일어 날 때마다 그를 내보냈고. 황희의 중재가 있어야 일이 풀려나갔다. 정 치적 노선이 다른 사람들이라도 황희를 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는 기상청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덕목이고 이를 바탕으로 화목한 직장문화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둘째, 연공과 서열 파괴의 생각을 가진 황희는 세종을 보필하면서, 능 력 위주의 인사정책을 펼쳤으며 지방이나 가문보다 실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의 사상과 시대정신처럼 오늘날, 기상청을 비롯한 모 든 공직사회에서도 지연이나 학연을 탈피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셋째.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황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인적 정보를 가지고 이를 활 용할 수 있었던 것은 태조부터 시작해 네 명의 제왕을 보필한 경륜 덕분이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개혁을 외치는 저돌적인 신진 관료들.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며 기존 질서의 유지를 바라는 대신 사이 에서 균형을 이루었다. 세종이 황희가 추천한 인물들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중용한 것은 그만큼 황희 의 사람 보는 눈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재등용 정책 덕분에 세종 재위 중 맹사성과 변계량, 정 인지, 김종서 등 수많은 인재가 능력을 발휘했고, 조선왕조 최고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그의 업적과 사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와 가치관을 함양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청렴을 자신의 신조로 삼고 소통을 이루고자 노 력했던 그의 정신을 다시 한 번 가슴속에 새긴다면 새로운 기상서비스 창출에도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장영실과의 인연

세종대왕이 신임하던 재상이 황희였다면, 황희 또한 신임하던 인물이 장영실이었다. 그는 장영실에게 도 힘을 실어 주었는데. 장영실이 자격루 제작에 성공하자 세종은 공로를 치하하고자 정4품 벼슬인 호 군(護軍)의 관직을 내려주려 했는데 논란이 많았다. 모든 신하들이 장영실의 노비신분 해방을 반대했 음에도 불구하고 황희는 적극적으로 그의 편이 되어 주었고, 마침내 장영실을 노비에서 해방시켜주었 을 뿐만 아니라 그를 관직에 오를 수 있게 도와주었다.

최근에 방영된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서도 황희와 장영실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장영실은 신분해 방에서 벗어나면서 그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앙부일구와 혼천의(천체 관측 기구)를 제작하는 등 빛나 는 업적을 세운다.



# 반구정과 장어마을

황희정승이 노년에 관직에서 물러나 파주로 와서 임진강이 한눈에 굽어보이는 강변 솔밭 둥지에 정자 를 짓고 시문을 즐긴 곳이다. 반구정에서 주차장으로 돌아오면 황희의 동상과 영정을 모신 영당이 나온 다. 반구정 옆에는 임진강을 앞에 두고 철책 너머로 북한 땅이 내려다보인다. 주변에는 임진강을 조망 할 수 있는 장어 집이 여러 곳이 있는데, 파주의 주요 먹거리이다. 반구정의 의미는 갈매기가 나는 형상 을 의미하여 반구정(伴鷗亭)이라 칭하였다. 서울에서 자유로를 타고 임진각 방향으로 자동차를 1시간 정 도를 달리다 보면 황희정승 유적지 '반구정'이 위치하고 인근에 율곡 선생의 '화석정' 이정표도 나온다.



### 통일전망대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이곳은 예전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북쪽 한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접해 있고 북녘땅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실향만들이 자주 찾는 곳이 다. 건물 옥상은 전망대 역할을 하고, 망원경이 설치되어 주위를 둘러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곳에서 는 봄철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시점을 맞이하여. 수도권기상청에서 매년 기상이변과 관련된 기상기 후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다.



# 아름다운 사람과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제주에서

부산지방기상청은 2012년부터 멘토링 프로그램 '환상의 짝꿍'을 운영해 왔다. '환상의 짝 꿍'은 아직 업무가 미숙한 새내기 멘티들과 그런 멘티들을 이끌어줄 짝꿍 멘토가 앞으로 의 계획을 통해 활동하고, 동기부여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우수 활동 2팀을 선정하여 정책 탐방 기회를 주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메티들이 메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에 적응하 는데 도움을 받았고. 짝꾼이 된 팀들은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인연이 이어져 인사 발령 등으로 타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직장 속에 서로 고충을 나누며 의지하고 있다.

# 마지막 '환상의 짝꿍' 제주도로 향하다!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이 조직 속에 스며들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면서, 부산지방기상청은 2015년을 마지막으로 잠시 제도를 접기로 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의 기획 담당자인 나와 나의 멘티가 마지막 정 책탐방의 기회를 가지는 영광스러운 팀이 되었다. 우리의 정책탐방 장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 운 그곳, 제주도로 정하고 전날까지도 각자의 업무로 너무 바쁜 날들을 보낸 터라 업무차 필요한 계획 을 제외한 여유시간의 모든 일정은 현지에서 마음이 가는 대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소위 우리 팀 의 이번 추억여행 테마는 '즉흥 행진!'

신청사 견학 겸 업무차 들린 제주지방기상청은 2015년에 준공한 청사로 날렵한 모양의 세련미 가득 한 현대 건물이었다. 특히, 1층의 기상홍보관은 지구온, 토네이도 발생기, 낙뢰발생기, 기상캐스터 체 헌, 관측장비 전시 등 크지 않은 공간에 체험시설과 전시물이 알차게 배치되어 견학생들의 이동경로 에 따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성이 인상 깊었다. 제주지방기상청 신청사의 다양한 아이디어 공간 들을 보고 다음 일정으로 출발하려는 찰나, 반가운 얼굴들을 만났다. 몇 년 전 제주에서 같이 근무했 던 인연들은 마치 엊그제도 같이 근무한 듯 익숙하게 우리에게 호떡을 건넸다.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 고 그들을 뒤로한 채 돌아서는 걸음에 뭉클한 정이 느껴졌다.

# 멘티와 함께 우도로 즉흥 행진!

멘티와 제주지방기상청 직원분들의 인연을 만들어주고 둘만의 추억을 위한 장소를 고민해 보니 제주 에서 근무하는 동안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우도'가 떠올랐다. 소가 누운 모양의 '우도'는 면적 5.9㎢. 해 안선 길이 17㎞ 정도로, 제주의 부속도서 중 가장 면적이 크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힌다. 성 산항에서 배를 타고 30여 분 후 '우도'에 도착하니 여기저기에서 자전거, 스쿠터 심지어 삼륜 전기 자







김효정 부산지방기상청





동차 호객행위를 하는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다. 멘티와 가까운 관광센터에 들어가 지도를 펴고 어떻 게 돌아볼 것인지 생각해보았다. 해안선이 길지는 않지만 걸어서는 4시간, 버스로는 생생한 풍경을 많 이 느낄 수도 없을 것 같아 자전거와 스쿠터를 잠시 고민을 하다. '우도는 역시 스쿠터 여행이지' 라고 현지인이 추천해준 스쿠터를 타기로 했다.

대학생 시절 학관 사이를 오가며 한두 번 타본 스쿠터 사이에서 멘티까지 뒤에 태우고 섬을 누비게 생겼다. 멘티는 내가 긴 고민 없이 자신 있게 스쿠터 타자는 모습을 보고 한 치의 의심 없이 능숙하 리라 믿었었나 보다. 겨우 시동을 걸고 한 1㎞쯤 지나자 뒤에서 숨소리도 안내고 얌전히 있던 멘티가 "주임님, 혹시 스쿠터 처음 타보시는 건 아니죠?" 하는 질문에 뒤늦게 자신 없는 고백을 하자, 우리는 박장대소를 하였다. 그러나 타고난 운동신경 때문인지 오랜만에 탄 스쿠터는 금방 익숙해졌고, 거침없 이 달려 우리가 처음 멈춘 곳은 '산호해수욕장!' 천연기념물 제438호로 산호로 이루어진 해수욕장이 었다. 사실은 홍조단괴로 이루어진 서빈백사와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백 사장이었다. 홍조단괴는 김, 우뭇가사리 등 홍조류가 단단하게 굳어 돌처럼 굳어진 돌처럼 형성된 것 이다. 한때는 이 모양이 울퉁불퉁 한 것이 산호 조각처럼 보여 산호가 부서진 것으로 오해받기도 했었 다. 이렇게 새하얀 서빈백사와 이와는 대조적인 푸르고 또 짙은 우도의 바다를 바라보며, 쌩쌩 부는 차가운 바닷바람에 질세라 우리는 우도의 명물인 땅콩 아이스크림을 덜덜 떨며 즐겼다. 감탄사가 절 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어느덧 2시간을 돌아 출발했던 천진항으로 돌아왔고, 짧았지만 인상 깊었던 우도를 뒤로 한 채 우리의 추억 여행을 마무리하였다.





#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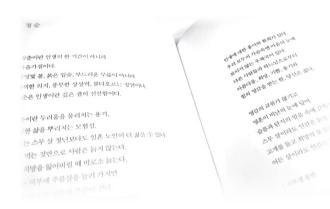
여행의 즐거움은 아름다운 자연에서의 힐링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만남과 이야 기 그리고 같이 보낸 소중한 시간이 정답인 것 같다.

업무로 지친 시간을 잠시 쉬어갈 수 있게 도와준 환상의 짝꿍 프로그램! 나를 믿고 자신을 거짓 없어 보여준 멘티에게 나 또한 멘티를 통해 성장하고 있음을, 또 추억을 만들어 준 많은 분께 이 자리를 빌 려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다.▩



# 서른 번째 봄

앞자리가 바뀐다고 나이 먹는 것이 더 특별할 것 은 없지만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 도 없을 때 서른 살은 온다"던 최승자 시인이나 "서른, 잔치는 끝났다"던 최영미 시인,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다"라며 〈서른 즈음에〉를 부 르던 가수 김광석의 노래 가사만 보아도, 모두가 서른이라는 나이를 꽤나 중요한 인생의 변곡점 으로 생각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이영주 프리랜서 방송작가



A Country Wedding, 모지스할머니, 1951



# 인생의 변곡점, 서른

어쨌든 올해의 3월 내 생일은 역시 꽃샘추위와 미세먼지, 앞자리가 바 뀐다는 특별함이 더해져 지나갔다. 물론 지인들의 '너도 이제 서른이 네'하는 장난 섞인 심심한 위로의 말과 함께. 딱히 그래야 할 이유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왠지 조금 우울한 기분이었다. N포 세대, 88만 원 세대, 금수저와 흙수저 외에도 "서른"이라는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는, 청춘 잔치 끝난 본격 어른'을 뜻하는 원치 않는 정의(定義)가 나를 규정짓는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나 스스로 내가 '어른이 되어버렸다'고 느낀 것은 고단한 밥벌 이와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 등을 핑계로 팍팍해져만 가는 내 마음 때문이었다. 어떤 걸 기대하고 기다리지도 않으며 무엇을 보아도 들어 도 충격 없이 무감각하고, 별로 기쁘거나 슬프지도 않은 마음의 노화와 마비.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런 상태는 나뿐만이 아니었다. 격정의 사회 초년생 시절을 지나 제법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리매김한 친구들 역시 '인생을 재미로 사냐. 그냥 사는 거지'하며 이 지루한 삶 속에서 근근이 애써 적응하는 모습이었으니 말이다.



The Quilting Bee, 모지스 할머니, 1940-1950



Catching the Turkey, 모지스 할머니, 1940

# 어린아이 살갗처럼 보들보들한 마음을 달라고…

하지만 그네들은 그런 기척이 별로 티가 나지 않으니 좀 나았다. 내가 문제였다. 사람의 마음을 울리 는 글을 써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정작 마음이 늙고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니. 하필 그 증세가 제 일 심했을 때가 휴먼 다큐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였던 지라. 왠지 다큐의 주인공과 그 방송을 보는 모 든 이들을 기만하는 것 같은 생각에 나는 알 수 없는 죄의식에 시달렸다. 빨리 이 허무를 털어버리고 어린아이 살갗처럼 보들보들한 마음을 달라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기도 했다.

생각의 끝에 내가 이런 '마음의 노화'를 겪게 된 이유는,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 아예 체 념해버리기로 한 치기 어린 선택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내가 생각할 때 서른은 꿈을 이루기 위 해 생계를 접기엔 너무 리스크가 큰 나이였고 또 '소년 급제'를 원했던 내게 또 다른 부침을 겪어내며 무언갈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였다. 그래서 꿈같은 건 포기하고 그냥 먹고 사는 데 의미를 두려 니 사는 것이 너무 재미없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허무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한마디로 속에 서 마음이 조로증(早老症)에 걸린 셈이었다.

# 그리고, 진짜 청춘 이야기

이러한 내 마음의 근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자 한 선배는 미국의 국민 화가 '모지스 할머니(Grandma Moses 1860~1961)'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자수 놓는 것이 취미인 평범한 할머니였던 모지스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관절염이 심해져 바느질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녀는 평생 다섯의 자녀들을 키우느라 자신의 재능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그런 그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모두 "너무 늙었다"고 할 만한 나이, 75세. 어느 날 루이스 칼더라는 미술 애호가가 시골 의 작은 구멍가게에 있던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을 사고, 그 후 큐레이터가 그림을 뉴욕의 한 화랑에 걸어놓으면서 그녀는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신산한 도시의 일상 속에 마음이 피폐해진 뉴욕 사람들에 게 따뜻하고 정감 있는 필치로 소박한 행복을 그려낸 그녀의 그림은 큰 감동을 주었다. 세계 곳곳에 서 전시회가 열렸고 1960년에는 뉴욕 주지사가 그녀의 100번째 생일을 맞아 그 날을 '모지스 할머니 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녀는 102세의 나이까지 1,500여 점의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그 림은 일평생 살아온 일상 속에서 발견한 작은 행복들이 알알이 공들여 새겨져 있는 훌륭한 작품이다.

한때 N세대로 불리던 우리가 88만 원을 받으며 3포, 5포가 되다가 이제는 무한정 늘어나 N포세대가 되었고 이제 어느덧 서른을 맞이했단다. 그런데 나는 모지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항해보고 심은 마음이 들었다. N포라니, 우린 포기한 적 없다고, 그렇게 가능성을 제한하는 말들로 우리를 규정 짓고 누르지 말라고, 언제가 됐든 나는, 우리는 꼭 빛을 볼 거라고, 꿈을 이룰 거라고……, 이렇게 말 하고 나니 내 마음의 나이가. - 30살쯤 된 걸까? '청춘이란 인생의 한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던 데, 이제 나도 내 마음의 진짜 나이를 찾아야겠다. 그래야 진짜 '봄'이니까. 📓



# 위성으로 한반도 주변 해양기상을 한눈에 감시한다!

바다는 우리나라의 삼면을 둘러싸고 있으며 우 리의 삶에 매우 가까이 있다. 새해 첫날 많은 사 람들이 바닷가에서 해돋이를 맞이하며. 여름철 더위를 피하기 위해 바다로 여행을 간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6%가 바다를 통 해 운송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조선 사업은 세계를 이끌고 있다. 많은 해산물이 우리 식탁 위에 놓이고 있으며 미래의 식량보고로서 바다 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김영미

# 해양기상을 감시하다

바다는 일기예보 및 기후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으로부터 이 동하는 기단이 서해상을 지나면서 안개가 발생하기도 하고, 비구름을 발달시킨다. 지구온난화로 극지역의 해빙이 녹으면서 해수면고도가 증 가해 해안선이 변하기도 하며, 바다의 변동으로 주기적으로 엘니뇨 · 라니냐와 같은 현상이 발생된다.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이러한 바다의 변화를 감시하여 일기예보 및 기후변화 감시에 활용하고 안전한 해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위성자료를 수집하여 해양기상정 보를 통합 · 표출하는 해양기상통합표출체계를 구축하였다.

# 해양기상과 위성관측

해양기상은 대기와 해양이 만나는 표면에서 나타나는 기상현상으로, 대 표적인 해양기상요소로는 해상품, 유의파고, 해수면고도 등이 있다. 해 상풍은 해양 혼합층의 깊이 변화, 파랑의 발달과 해양표층 순환과 관련 이 있다. 해상품이 강한 지역에서는 혼합층이 잘 발달하고, 강한 해상품 은 높은 물결과 너울을 일으켜 해상활동과 연안지역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해상풍은 마이크로파 센서로 탐지할 수 있으며, 현재 국가기 상위성센터에서 수집 가능한 MetOp/ASCAT, DMSP/SSMIS, GCOM-W1/AMSR2, GPM/GMI 등의 위성관측 해상품 자료를 6시간마다 통합 하여 매시간 산출한다. 특히 해양기상통합표출 체계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특성을 반영하여 관측값을 보정함으로써 자료의 정확도를 향상시 켰다. 이러한 해상풍 자료는 어민활동이나 선박 등 항해에 가장 중요한 해양기상정보 중 하나로써 매일의 일기예보와 함께 태풍의 눈을 추적 하거나 강풍역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유의파고와 해수면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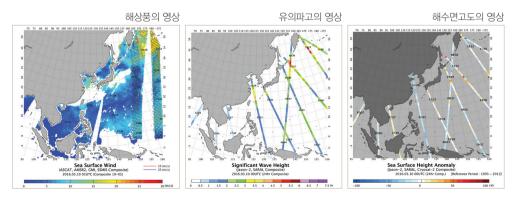
유의파고(significant wave height)는 일정 시간 동안 관측한 파고 중 파 고가 높은 순서로 나열하여 최고에서 1/3에 해당하는 파고의 평균파 고를 의미한다. 유의파고의 정의는 다소 생소하지만, 해상활동의 안전 과 매우 밀접한 자료이다. 기상청에서 풍랑주의보, 풍랑경보를 발표할 때 풍속과 함께 기준이 되는 정보이다. 기상청에서는 유의파고가 3m. 5m 이상이 예상될 때 각각 풍랑주의보와 풍랑경보를 발표한다. 위성 에서 관측한 유의파고는 파랑의 발생, 전파를 감시하는데 매우 유용 한 정보이다.



마지막으로, 해수면고도는 전지구 및 연안의 해수면고도의 변화를 감시하는데 중요하다. 해수면고도 의 변화는 유의파고 자료와 함께 연안 재해를 감시하고 예측하는데 사용되며, 엘니뇨, 라니냐와 같은 큰 규모의 해양변화를 감시하는데도 유용하다. 유의파고와 해수면고도는 위성고도계(Altimeter) 센서 로부터 관측이 가능하다. 국가기상위성센터는 Jason2/Poseidon3, Saral/Altika 및 CroSat-2/SIRAL에 서 관측한 자료를 수집하여 24시간 동안 우리나라 주변을 관측한 영상을 통합하여 표출한다. 새로운 영상이 만들어지는 시간 간격은 6시간이다. 해상풍과 마찬가지로 유의파고와 해수면고도 정보도 정확 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의 해양특성을 반영하여 위성자료를 보정하였다.

# 앞으로가 기대되는 해양기상통합표출정보

해양기상통합표출 정보는 현재 시험운영 중이며 향후 2016년 상반기에 국가기상위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해상관측자료가 부족한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기상 변화 를 감시하는 역량이 향상되어, 해상활동 지원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늘 훌쩍 떠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있었다. 삶에 치여 하늘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일상에 역증이 생길 무렵, 우연히 보게 되었던 사진 하 나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아름다운 하늘을 열 기구로 여행하는 모습은 나에게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난 친구와 함께 정말로 터키 를 향해 가고 있었다.



서은영 Hone 사원

# 지금 여기. 지구가 맞나요? '카파도키아'

첫 여행지는 사진에서 봤던 그곳. 무조건 카파도키아(Cappadocia)였 다. 이곳은 이미 영화 스타워즈와 개구쟁이 스머프의 배경으로도 유 명한 곳이었다. 신과 인간이 빚은 최고의 예술품이라고 불리는 카파 도키아, 카파도키아의 자연은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이 식으며 수백만 년의 세월 동안 풍화작용과 침식으로 이처럼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 됐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기대했던 벌룬 투어. 어슴푸레 해가 떠오를 무렵 거대한 벌룬에서 내려다본 카파도키아의 초현실적인 풍경은 나를 그저 멍하 게 만들었다. 흰 구름 속 선명하게 떠오르는 태양, 그 아래 물결치듯 늘 어서 있는 기암괴석들의 조화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이었다. 어떤 수식어를 가져와도 표현할 수 없었다.

한 시간 반 정도의 하늘 위의 투어가 끝나면 땅 위에서 작은 파티가 벌 어진다. 벌룬 투어 회사에서 제공하는 샴페인 파티인데, 작은 다과파 티지만 하늘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채 마시는 샴페인의 맛은 그야말 로 환.상.적!









# 여행 중 최고의 선물, 로즈밸리 정상

카파도키아 여행의 백미는 로즈밸리 투어였다. 해가 지기 2시간 전부터 트레킹 코스를 따라 천천 히 걷고, 해가 지는 절정의 무렵에 로즈밸리 정상에서 노을을 감상하는 것이다. 억새 밭길과 붉은 색의 독특하게 생긴 바위들이 한데 어우러진 풍경과 함께 스러지는 저녁노을의 모습은 내 여행 중 최고의 선물이었다. 카파도키아. 그토록 많은 사진을 보았다 해도 그 앞에 서면 생생한 충격으로 몸이 굳어버리는 곳. 자연이 만든 풍경 앞에서 인간의 언어는 진부하기만 해 그 모든 말이 사라져 버리는 곳이었다.

# 하늘을 나는 꿈, 꿈은 이루어진다! '페티예'

페티예(Fethiye)는 터키 남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휴양도시이다. 바다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지 만 내가 이곳을 여행 여정에 넣은 것은 바로 '패러글라이딩' 때문이었다. 터키의 페티예는 네팔의 포카 라. 스위스의 인터라켄과 함께 세계 3대 패러글라이딩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니었던가.

아침 7시에 우리를 태운 트럭은 흙먼지를 날리며 울퉁불퉁한 산길을 신나게 올라갔다. 차 안에서는 서 로의 파트너를 뽑는 제비뽑기를 했다. 난생처음 하늘을 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는데, 그 두려 움은 파트너를 향한 불신의 질문들로 연결됐다. 내 불안함을 알았는지 나의 파트너는 자격증 딴 이후 로 오늘 처음 비행이라며 짓궂은 농담을 내게 건넸다. 그렇게 한 시간쯤 달렸을까. 차가 멈춰 섰고 파 일럿들은 장비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 "무조건 달려요. 절대로 멈추면 안 돼요!"

장비를 채워주며 파일럿은 내게 검을 줬다. 2.000m 높이의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나 고대했던 순간이었던가, 카메 라에 내 유언(?)을 남기고 드디어 준비.

# "One, Two, Three, Run, Run, Run!"

눈을 질끈 감고, 이를 꽉 물고 달리기 시작하니 어느새 세상은 내 발 아래 있었다. 손끝까지 저릴 만큼 긴장됐지만 그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곧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캐노피와 연결된 줄을 마치 생명 줄인 것처럼 꼭 잡았던 두 손을 펼쳐보았다. 하늘 위는 생각보다 잠잠했고 고요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푸른 지중해와 반짝이는 욀루데니즈(Oludeniz) 해변, 저 멀리 보이는 블루 라 군, 늘 꿈꿔왔던 하늘을 나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마치 하늘이 그동안 고생했다고 내게 말을 건 네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났다.









# 마무리와 새 출발을 다짐하며 춘천으로!

내게 2016년은 학생으로서의 마지막을, 사회인으로서의 시작을 준비하는 다사다난한 해이다. 대학생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기상청에서의 새 출발을 앞두고 도심을 벗어나 바 람 쐬고 싶다는 생각에 춘천 여행을 결심하였다. 서울에서 가깝고도 먼 춘천에는 겨울 연가의 촬영지로 유명해진 남이섬 외에도 즐김 수 있는 곳이 많다. 즐김 거리로 가득하 고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춘천으로 여행을 떠났다.

# 춘천으로 향하는 길♬

용산역에서 ITX 청추열차를 타고 추천으로 향했다. 친구와 함께 기차에 앉아 간식을 먹으면서 여행의 설렘을 만끽하였다. 기차를 타는 것만으로도 여행기분을 내기에 충분했다. 용산역에서 출발한 지 2시 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깥 풍경을 감상하며 기차여행의 즐거움을 느끼다 보 니 어느새 김유정 역에 도착해있었다.

# 북한강을 따라 달리는 레일바이크

김유정 역은 한국철도 최초로 역명에 사람 이름을 사용한 역이라고 한다. 그 이름에 맞게 역이 한옥 식으로 지어져 있어서 김유정 작가의 대표작인 봄봄의 배경처럼 향토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 역에 서 내리면 강촌 레일파크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다. 레일바이크 표를 끊고 기다리면서 근처 매점에서 따뜻한 어묵도 먹고 소설책을 테마로 한 벽과 점순이 동상 옆에서 사진도 찍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매서운 찬바람이 부는 날씨였지만 남녀노소할 것 없이 레일바이크를 즐기러 온 사람들로 북적북적하 였다. 레일바이크 코스는 옛 기찻길을 활용한 것으로, 김유정 역에서 출발하여 4km 지점까지 레일바 이크로 이동하고 남은 4km는 낭만열차를 타고 강촌역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레일바이 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운행해야 하는데, 할머니 두 분이 타신 앞 바이크의 속도가 너무 느려서 가 다가 멈추는 것을 계속 반복해야 했다. 처음에는 답답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속도 조절을 하면서 친 구와 중간중간 노을이 지는 북한강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풍경을 감상하면서 여유를 즐겼다. 레일바 이크는 계절마다 볼 수 있는 풍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와도 색다르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코스 중간마다 있는 터널 속에는 알록달록한 조명과 함께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와서 여행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다. 더는 페달을 밟기 힘들어질 때쯤 휴게소에서 낭만열차로 갈아타서 강촌역까지 이동하였다.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아침고요수목원에서 즐기는 오색별빛축제

레일바이크를 타고 난 뒤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쯤 아침고요수목원으로 가기 위해 청평역으로 이동했 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수목원으로 가기 전에 배를 든든하게 채우기 위해 춘천의 명 물인 닭갈비집으로 향했다. 원래도 닭갈비를 좋아했지만 본고장인 춘천에서 먹어서 그런지 더 맛있 게 느껴졌다.

매겨울마다 아침고요수목원에서 열리는 오색별빛정원전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촬영지로 나온 만큼 매력적인 겨울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었다. 오색별빛이라는 이름처럼 형형색색 다채로운 조 명으로 둘러싸인 수목원은 낮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수목원 곳곳에는 테디베어, 마차, 하트 등 다양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특히 커다란 테디베어가 인기가 제일 많아서 사진을 찍으려면 줄 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 목도리와 장갑은 필수일 정도로 꽁꽁 싸매도 추운 날씨였지만 수목원은 아 름다운 조명으로 가득한 밤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생각보다 꽤 넓어서 입구에서부터 다 둘 러보는 데에 한 시간 정도 걸렸다. 그렇게 수목원 빛축제 관람을 마지막으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 아가는 기차 안에서는 따뜻한 기운에 피곤과 함께 몸이 풀리면서 푹 잠이 들었다.

아직은 차가운 바람 때문에 춥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추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알차게 즐길 수 있었다. 이번 여행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떠난 여행이었기에 더욱 기억에 남을 것 같 다. 춘천에서 얻은 좋은 기운으로 기상청에서의 활기찬 출발을 다짐해본다.





# 봄철 나들이길, 충분한 휴식이 중요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 본격적으로 공원이나 산으로 나들이가 시작되는 계절이다. 이때 갑작 스러운 신체 활동과 기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 고 멀미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어지럼증과 멀미가 발생하는 원인 및 예방법을 알아보자



박민현 교수 보라매병원 이비인후과

# 멀미의 원인, 균형

멀미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의 균형을 잡는 방법을 이해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세 가지 감각 을 동원한다. 귓속의 전정기관에서 느끼는 평형감각과 우리 몸이 바로 서 있는지 확인하는 감각, 그리고 몸 근육과 촉각을 동원해서 우리 몸 의 자세를 판단하는 감각이 그것이다. 멀미는 이런 감각 기관에서 느끼 는 것들이 서로 다를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좁은 차에 있으면 눈으로 보는 것이 제한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몸은 끊임없이 움직이므로 귓속의 전정기관에서는 진동을 느낀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과 몸이 느끼는 것이 다를 때 머 릿속에서 혼란이 생기면서 멀미가 발생한다.

# 멀미의 증상과 대처법

멀미가 발생하면 어지럼증과 함께 땀이 나고,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 상이 동반된다. 이럴 때는 주스나 물을 조금씩 섭취하고 신선한 공기 를 마시면서 멀미를 가라앉혀야 한다. 이때 급격하게 몸을 움직이면 어 지럼증을 악화시키므로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또 평소에 어지럼증이 있는 사람은 바위산을 오르거나 보트를 타면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삼간다.

# 시야를 넓히는 것이 중요!

따라서 봄나들이를 갈 때는 시야를 넓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나 배 를 타고 이동할 때는 바깥을 내다보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충분히 휴 식을 취해야 한다. 시야가 좁은 뒷좌석보다 앞좌석에 앉는 것도 멀미 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아이들은 좁은 뒷좌석에서 책을 읽 거나 게임기를 가지고 노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멀미가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삼간다. 평소 멀미를 자주 한다면 출발 전에 귀 뒤에 붙이는 패 치형 예방용 약물을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24절기

# 하늘이 차츰 맑아지는

# 청명(淸明)

음력 3월에 드는 24절기의 다섯 번째 절기. 청명(淸明)이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뜻을 지닌 말이다. 양력으로는 4월 5~6일 무렵에 들며, 태양의 황경(黃經)이 15도에 있을 때이다. 이날은 한식(寒食) 하루 전날이거나 같은 날일 수 있으며, 춘분(春分)과 곡우(穀雨) 사이에 있다.



#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한식과 청명은 보통 하루 사이이므로 하루빨리 죽으나 늦게 죽으나 별 차 이가 없음을 일컫는 속담이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청명조(淸明條) 의 기록에 따르면, 이날 버드나무와 느릅나무를 비벼 새 불을 일으켜 임금 에게 바치며, 임금은 이 불을 정승과 판서를 비롯한 문무백관 그리고 360 고을의 수령에게 나누어준다. 이를 '사화(賜火)'라 한다. 수령들은 한식날에 다시 이 불을 백성에게 나누어주는데, 묵은 불을 끄고 새 불을 기다리는 동 안 밥을 지을 수 없어 찬밥을 먹는다고 해서 한식이라고 한다. 『열양세시기』 (洌陽歲時記)」에서는 불을 나누어주는 일을 한식조(寒食條)에 기록하고. 청 명에 대하여서는 언급이 없다. 청명과 한식은 흔히 같은 날이 되기 때문에 뒤섞이는 경우가 많아 오늘날 민간에서도 뚜렷한 구분 없이 전해지고 있다.

# 청명에는 부지깽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

청명에는 부지깽이와 같이 생명력이 다한 나무를 꽂아도 다시 살아난다는 뜻으로, 청명에 심으면 무엇이든 잘 자란다는 말, 중국에서는 청명 15일 동 안을 5일씩 3후(候)로 나누어 초후(初候)에는 오동나무의 꽃이 피기 시작 하고, 중후(中候)에는 들쥐 대신 종달새가 나타나며, 말후(末候)에는 무지 개가 처음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청명이란 말 그대로 날씨가 좋은 날이고, 날씨가 좋아야 봄에 막 시작하는 농사일이나 고기잡이 같은 생업 활동을 하기에도 수월하다. 곳에 따라서는 손 없는 날이라고 하여 특별히 택일을 하지 않고도 이날 산소를 돌보거나. 묘자리 고치기, 집수리 같은 일을 한다. 이러한 일들은 봄이 오기를 기다리 면서 겨우내 미루어두었던 것들이다.

# 청명과 봄받갈이

청명이 되면 비로소 봄밭갈이를 한다. 청명은 농사력의 기준이 되는 24절 기의 하나로 날씨와 관련된 속신이 많다. 청명이나 한식에 날씨가 좋으면 그 해 농사가 잘 되고 좋지 않으면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점친다. 바닷 가에서는 청명과 한식에 날씨가 좋으면 어종이 많아져서 어획량이 증가한 다고 하여 날씨가 좋기를 기대한다. 반면에 이날 바람이 불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파도가 세게 치면 물고기가 흔하고, 날씨가 맑아도 물밑에서 파도가 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지역에서는 청명에 나무를 심는데, 특히 ' 내 나무'라 하여 아이가 혼인할 때 농을 만들어줄 재목감으로 나무를 심었 다. 이날 성묘(省墓)를 가기도 한다.

출처:국립민속박물관



# March 주요 기상정보 및 이슈

S	UN MON	TUE	WED	THU	FF	RI SAT
		시 1 실일을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2	3 <sup>납세자의 날</sup>	4	(5 <sup>점심)</sup> 기가 다면
6	을하다 첫 호사가 발사내	8	9	10 및 기술 · 서울 영하 4도	11	12
13	14 부한 <mark>확하부도 지진</mark> •송림 인근서 규모 3.1 지진 발생	15 <sup>3</sup> , 15의자명일 - ' 높은 일교차, © 미서미건지 주의	16 생공의 날	17 / 명양 인근 지진 • 규모 2.2 인공지진	18	19
20 <sup>&amp;#&lt;/sup&gt;&lt;/td&gt;&lt;td&gt;· 낮 최고 21도&lt;/td&gt;&lt;td&gt;22 세계물의날&lt;/td&gt;&lt;td&gt;23) ************************************&lt;/td&gt;&lt;td&gt;24&lt;/td&gt;&lt;td&gt;25&lt;/td&gt;&lt;td&gt;26&lt;/td&gt;&lt;/tr&gt;&lt;tr&gt;&lt;td&gt;27&lt;br&gt;기진방생&lt;br&gt;•북한 평인&lt;br&gt;•울산 규5&lt;/td&gt;&lt;td&gt;28&lt;br&gt;남남도 규모 3.0 지진 발생&lt;br&gt;2 2.3 지진 발생&lt;/td&gt;&lt;td&gt;수도권 봉비&lt;/td&gt;&lt;td&gt;OIMIDIAI CHÀ&lt;/td&gt;&lt;td&gt;31&lt;/td&gt;&lt;td&gt;&lt;/td&gt;&lt;td&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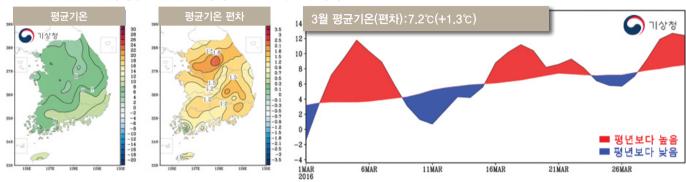
# 두 차례 많은 강수량

- 전반적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으나, 4~6일과 18일에 많은 비가 내려 전국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 였다.(평년대비 99%)
- −일본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동중국해상으로부터 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4~6일 동안 약 40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특히 5일에는 일 강수량 극값을 경신한 곳이 많았음
- ※ 5일 일 강수량은 성산 104.4mm, 순천 86.6mm, 서귀포 73.3mm, 정읍 56.5mm, 이천 56.3mm, 파주 56.2mm, 전주 54.3mm, 강화 51.5mm, 동두천·수원 51.2mm를 기록하였으며, 제주도와 경상남도 일부지방에 호 우특보가 발효되었음
-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18일에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 ※ 18일 일 강수량은 통영 48.5mm, 거제 46.5mm, 남해 41.0mm, 부산 38.7mm, 여수·창원 28.8mm, 성산 28.2 mm를 기록하였음
- 저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으로 통과하여 남부지방의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았으며, 충청도 및 강원 도영동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어 지역적 편차가 나타났음
- -충청남도 및 강원도영동 강수량이 평년대비 50% 내외로 매우 적었음
- 동풍의 영향으로 9일에는 강원도영동에 눈이 내렸음 ※ 9일 일 최심신적설은 북강릉 6.5cm를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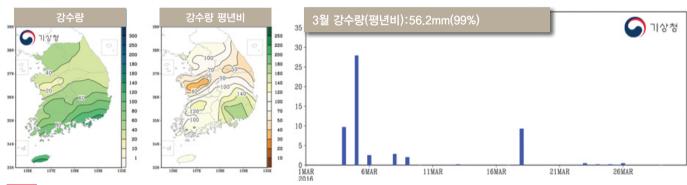


#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 4위였던 3월!

### 전국 45개 지점의 3월 (위)평균기온과 편차(℃) 분포도 및 평균기온(℃) 편차 일변화



### 강수량(mm)과 강수량 평년비(%) 및 강수량(mm) 일변화



### 전국 평균(1973년 이래)의 3월 순위 현황

	1위		2위		3위		4위		5위	
평균기온(최고) (℃)	2002	7.9	2014	7.7	1998	7.4	2016	7.2	1990	7.2

# 따뜻한 기온과 꽃샘추위

- 3월은 이동성 고기압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아 기온변화가 주기적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
  - ※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3℃ 높아 1973년 이래 4번째로 높았음
- -3~8일과 16~23일 및 28~31일에 이동성 고기압 및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 서기류가 유입되어 기온이 크게 상승
- -1일과 9~15일 및 24~27일에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낮음

# 한 차례 황사 발생

- 전국 황사 발생일수는 0.6일로 평년(1.8일)보다 1.2일 적었음
- -몽골과 중국 북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이동하여 6일과 8일에 우리나라에 유입되었으며, 서 해안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었음
  - ※ 황사는 전국 13개 목측관측 지점에서 관측한 자료를 사용함



#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 \* '세계기상기구정보시스템 국제협력회의 (OpenWIS in Seoul)' 개최(3,7~11)

세계기상기구정보시스템 국제협력회의(OpenWIS in Seoul)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력회의를 위해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상관측자료 교환체계 개선을 논의하였다.



# <sup>®</sup>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언론인 기상강좌 개최(3.15)

기상청 출입기자와 기상캐스터, 리포터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상 지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언론 인 기상강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강좌에서는 한양대학교 예상욱 교수의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소통 하는 시간이 되었다.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Ⅰ 편집단





# \* '제33회 기상기후사진전' 전시회(3.14~25)

'제33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작품들이 서울시 민청(시민프라자홀)에서 전시되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문 가들이 찍은 특별 기상사진 전시와 기상캐스터 사인회, 나만의 날씨이야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되었다.



# <sup>\*</sup> 2016년 세계 기상의 날 기념식 개최(3.23)

기상청은 2016년 세계 기상의 날을 맞아 '심각해지는 기후변 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하 였다. 기념식에서는 기상기후 사진 전시회, 기후변화 주제 강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 \* '2016 보건기상 학술회의' 개최(3.24)

봄철 불청객인 꽃가루 알레르기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6 보건기상 학술회 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학·관·연 전문가 70여 명 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 \* '2016년 달라지는 예보체계' 정책브리핑 시행(3,24)

2016년 달라지는 예보체계를 주제로 3월 정책브리핑을 진행했 다. 이번 브리핑을 통해. 중기예보 지역 및 해상예보구역 세분 화, 상세안개정보 개선, 단기예보 개편, 3차원 날씨해설영상 서 비스 등 올해 달라지는 부분을 상세히 발표하였다.



# \* 자체 평가위원회 개최(3.25)

2016년도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의 임명장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자체평가위원회는 기상청에서 진행 중인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관리과제 수행 적절성 평가 및 현장점검을 시행하 고 정책개선에 활용된다.



# 독자마당

#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 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퀴즈 참여 방법

퀴즈 정답은 4월 25일까지 전자우편(kmanews@korea.kr)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 · 주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기고 방법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 간격 160%, A4용지 1 장 반 정도)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 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이나 원고료를 드립니다.

# O&A

# 대기가 불안정하면 왜 비가 올까?

보통 찬 공기는 무겁고, 더운 공기는 가볍다. 대기의 상태는 하층엔 찬 공기가, 상층엔 더운 공기가 있을 경우에 안정적이다. 이는 상공의 온도가 높 으므로 지상의 찬 공기가 부력을 받지 못하여 더 이상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바람이 불어서 찬 공기가 공중으로 조금 올라가더라도 바람이 끝나 면 다시 제자리(지상)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층에 더운 공기가 있고, 상층에 찬 공기가 있으면 대기가 불안정해진다. 위로 올라간 공기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상승하기 때 문이다. 비는 상승기류가 있어야 올 수 있다. 습기를 가진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기온이 낮아지므로 냉각, 응결되어 비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불안정도가 크면 클수록 상승기류가 왕성하여 많은 비가 오며, 천둥 번개도 나타난다. 대기의 불안정한 지역이 넓고, 불안정도가 크면 클수록 상승 기류가 크게 일어나 비가 많이 온다.

# Ouiz

- 1. 평범한 할머니였던 그녀는 75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102세의 나이 까지 1,500여 점의 그림을 그렸으며, 따뜻하고 정감 있는 필치로 소박한 행복 을 그려 큰 감동을 준 미국의 국민 화가의 이름은 무엇일까?
  - ① 루이스 칼더라
- ② 모지스
- ③ 로즈벨리
- ④ 모네

# 지난달 퀴즈 정답

1. ④ 에어로졸 2. ④ 비강증

강정은(울산), 고귀한(전남), 문다솜(부산), 정광훈(제주), 조석(의정부)

- 2. 세계 3대 패러글라이딩 명소가 아닌 곳은?
  - ① 스위스 인터라켄 ② 터키 페티예 ③ 벨기에 브뤼셀 ④ 네팔 포카라

# 인사발령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승진		관측	기반국	일반직고위공무원(국장)	이미선
전보	3.1	국가기:	상위성센터	부이사관(센터장)	김남욱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	기술서기관(과장)	이정환
신모		예보국	예보기술분석과	서기관(과장)	김용상
		수도권기상청	예보과	서기관(과장)	전재목
	3.17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기술서기관	신언성
		운영	지원과	서기관	박정수
		예보국	예보정책과	기술서기관	박영연
		예보국	예보기술분석과	기술서기관	함동주
ΔTI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	기술서기관	한성의
승진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	기술서기관	김재영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	기술서기관	문재인
		기상서비스진흥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기술서기관	이명희
		관측기반국	계측기술과	기상사무관	류수호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행정사무관(과장)	강광현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승진	3.17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상사무관	강영범
	52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기상사무관	함태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기상사무관	이수홍
			예보국	총괄예보관실	기상사무관	김진철
			예보국	총괄예보관실	기상사무관	이시우
			예보국	방재기상팀	기상연구관	강기룡
			관측기반국	지진화산정책과	기상사무관	김병춘
			관측기반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방송통신사무관	이세종
	전보	3 17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기상사무관	박병권
		0.17	기상서비스진흥국	인력개발과	기상사무관	김정식
			국립기상과학원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기상연구관	구태영
-			국립기상과학원	관측기반연구과	기상연구관	박영산
			국립기상과학원	수치모델연구부 수치모델개발과	기상연구관	백희정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상사무관	박창수
			강원지방기상청	관측과	방송통신사무관	정기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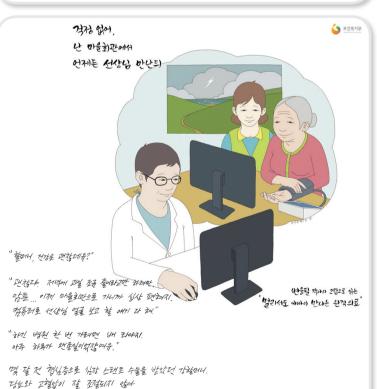




武司姓生 上班的建計…

01智 避然对的州

아픈 나를 가장 먼저 챙겨를 건 원격의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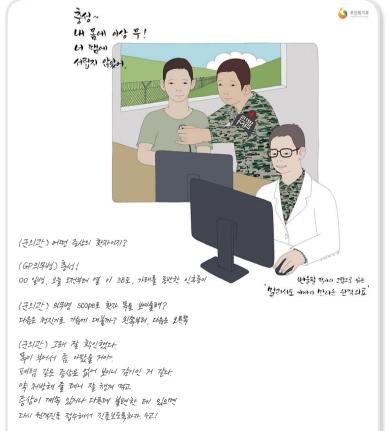
असी देशान देशाना श्रेष्ट धर्मियारा धेरोहि LATHOF छोट्टे अख्टिम.

"चेंद्री तार, चेंद्र तार... पुंधा नार्था ध्रेम जात.

में इही रोजात शिह्यारा हुई तिहेना

ItHU REFOI THESTE.

翠 水红 9时, 如州 社 出 到到了... =171"





국가행정기관별로 사용해오던 상징이 대한민국 정부상징으로 하나가 됩니다



# 대한민국정부

